

해외 수산생물 질병발생 동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 호주 더웬트 하구부근에서 발생한 어류 대량폐사 원인규명(2015.3.10.)

- 호주 더웬트 하구부근에서 수천마리 어류 집단폐사가 보고되어 관계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 지난주 뉴노퍽크 지역 로위타와 밀브룩라이즈 방파제 사이에서 폐사된 꼬치고기치어가 발견되었다. 공공 감시그룹인 '더웬트 하구 감시 프로그램'의 단장을 맡은 크리스틴씨는 이 지역 어류 테스트 결과와 수질센서 데이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 그녀는 꼬치고기집단이 먹이를 따라 상류로 헤엄쳐오는 과정에서 담수 내에 갇히게 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구 상류부근은 여름에 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서 담수층이 두터운 염분층 위에 형성된다."고 말했다.
- "염분층 기저의 수질이 여름이면 보통 좋지 않다. 담수 파동이 아래로 형성 되면 꼬치고기는 염분층 기저에 정착하게 되고 이 구역의 수질이 좋지 않아 살아남기 힘들다. 폐사원인 규명을 위해 다량의 어류 샘플을 수거해 조사하고 있다. 이 지역 몇 군데에서 수집한 센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
- 현재 여타 어류 피해는 없는 상태다.

출처 : <http://www.fishfirst.cn/article-45847-1.html>

해외 수산생물 질병발생 동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 자신의 새끼들을 잡아먹는 좀비 새우로 만드는 기생충 (2015.3.18.)

- 동종을 잡아먹는 동물로 만드는 일명 '좀비' 기생충이 발견됐다.
- 연구진은 좀비 특성을 지닌 일부 민물새우를 북아일랜드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아주 작은 기생충인 플리스토포라 모델리는 감마로스 새우 집단 내에서 좀비의 특성을 순식간에 증식시키고 먹이를 빠르게 잡아먹게 만든다. 리즈대학교와 벨페스트 왕립대학, 남아프리카의 스텔른보치대학은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왕립오픈사이언스 저널에 발표했다. 연구를 이끌었던 리즈대학교의 엘리슨 던 박사는 "동종을 잡아먹는 특징은 자연에서 꽤 흔하게 일어난다. 이번이 기생충에서 이 특징이 파생되는지를 알아보는 첫 연구이다"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체 새우가 어린 새우를 잡아먹는 것이 먹이습성의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해도 이 기생충에 감염된 새우는 두 배나 많이 먹는 특성이 있었다. 또한 비 감염새우에 비해서 더 자주 더 빨리 먹이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맨디 박사는 "기생충 크기가 인간의 적혈구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작아도 숙주 근육에는 수백만 개가 서식하며 모두 숙주로부터 먹이를 섭취한다. 기생충이 먹이를 더 많이 필요로 해서 숙주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좀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가장 최근연구에서는 감염되지 않은 성체 새우가 감염되지 않은 어린 새우를 잡아먹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던 박사는 "새우 내 기생충은 죽거나 다른 새우에게 잡아먹힐 때 혹은 새우가 타 새우를 잡아먹을 때 다른 새우로 옮겨간다. 하지만 감염되지 않은 새우는 기생충에게 영양분을 뺏기지 않아 동종을 먹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감염된 새우는 감염되지 않은 어린 새우와 감염된 어린 새우 모두를 먹는다. 아마 먹이가 부족하거나 이미 기생충에 감염되어 감염된 새우를 먹지 않는다고 해도 유리한 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 그는 또한 "기생충과 인간 좀비의 가능성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리즈대학 글렌 박사의 연구를 보면 '톡소플라스마 곤디이'라는 기생충이 인간 두뇌 화학물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인간과는 달리 새우는 동종을 잡아먹는 것이 감염되지 않은 새우에도 중요한 먹이의 원천이 된다. 진화론 상에선 기생충이 발달해 인간 좀비로까지 연결될 수 있지만 이런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3001543/The-zombie-parasite-turn-shrimp-frenzied-CANB.html#zz3AArt5L>

해외 수산생물 질병발생 동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 중국 노르웨이 연어 수입제한(2015.3.18.)

- 중국이 수산질병의 발병을 우려해 노르웨이 연어 수입에 제한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 수산물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당국은 중국이 3월 23일부터 노르란과 트롬스 지역 사우스 트론더래그 북부에서 수입하는 모든 연어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 지역 연어 수출은 2014년 노르웨이 연어 수출에서 5분의 1을 차지했다.
- 타 지역 연어 수입을 위해서 중국은 4월 18일부터 연어빈혈증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계 당국자는 성명을 통해 “중국연어는 연어빈혈증 감염 위험이 없다. 노르웨이 산 연어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어빈혈증은 사람에게 직접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중국과 노르웨이는 2010년 노르웨이노벨상위원회가 중국 반체제인사인 류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한 이후 냉랭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노르웨이는 세계 제 1의 연어 수출국이다. 마린 하베스트, 살마르, 레로이 씨푸드, 그레그 씨푸드, 노르웨이 로열 살몬 등이 주요 수출업체이다.

출처 :

<http://translate.google.com.au/translate?sl=es&tl=en&hl=en&js=n&ie=UTF-8&u=http%3A%2F%2Fwww.reuters.com%2Farticle%2FbusinessNews%2FidLTAKBN0VE29V20150318>